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8

고고학과 성서 역사의 관계

IV. 고고학과 성서 역사의 관계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섹션인 로마 숫자 IV, “고고학과 성경 역사의 관계” 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창세기 11장에 대한 논의와 창세기 12장에 대한 논의 사이에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 12장에 도달할 때 당신은 고고학이 성경 자료와 관련이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성경적 데이터와 관련된 추가적인 성경적 역사적 데이터가 없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고고학과 그 방법, 이점 및 용도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 성서 고고학의 일반적인 조사, 그 역사 및 방법

B. 성경의 역사적 진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고학의 역할

당신은 Allan McRae 박사의 책을 읽고 있으며 실제로 로마 숫자 IV 대문자 A는 “성서 고고학의 일반 조사, 그 역사 및 방법”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McRae 소책자를 읽으면서 최소한 고고학 연구의 역사와 방법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작성하도록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B, “성경의 역사적 진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고학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방법론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을 어떻게 다루나요? 우리의 성경 연구와 관련하여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나는 B, “성경의 역사적 진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고학의 역할”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고고학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고학 연구의 결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100년 전보다 성서 시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성서 연구에서 고고학 연구의 역할을 올바른 관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고고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때때로 고고학에 너무 많은 중요성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요하며 나는 그것을 최소화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고고학 에 너무 많은 중요성이 부여되어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견해가 없는 비판적인 학자들이 고고학을 사용하여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성경 본문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이 부정확하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거나 고고학 연구 결과로 인해 역사적 부정확성이 있다고 말하는 비판적 접근 방식의 동전의 한 면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 연구를 활용한 보수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했다고 암시하는 안내서가 많이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고고학적 증거가 성경적 진술을 확증하고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학자들이 고고학 데이터에 대한 특정 해석이 수정, 변경 또는 역전되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고고학이 우리에게 성경이 사실임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해석이 의심스럽거나 나중에 더 많은 증거를 통해 데이터가 재해석되거나 수정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용은 더 이상 실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고학 연구를 “과학적 결과” 가 특히 성경 해석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성경을 지배하는 위치로 끌어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역사적 해석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항상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나는 거기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 “고고학자에게 가자. 고고학자가 답을 말하게 하자” 고 제안한다.

모든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고고학자들은 자신의 결론에 대해 만장일치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한 고고학자는 특정 발견의 해석에 대해 이것이 의미하는 바라고 말하고 다른 고고학자는 다른 것을 말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고학이 우리에게 어떤 통일된 방식으로 무언가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이 어떻게 성경 연구와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유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요성을 최소화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양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고학 데이터가 성경 해석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개요 시트에 1.과 2로 게시된 두 가지 사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고학적 증거가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매우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격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단편적입니다. 둘째, 많은 경우 고고학적 증거의 해석은 잠정적일 뿐이다.

1. 고고학적 증거는 본질적으로 매우 단편적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고학적 증거는 본질적으로 매우 단편적이다.” 학문 자체의 성격 때문에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에 관한 한 주어진 질문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때문에 그 교장은 중요합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성서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단편적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확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증거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귀하의 참고문헌 12페이지에서 처음 세 항목은 오하이오주 마이애미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Edwin Yamauchi의 일부 기사와 책임입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고고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역사가입니다. 그의 기사 “The Stone, Scripts and Scholars” 와 다음 책 *The Stones and the Bibles*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및 성서 전통의 고고학적 확증 의심 요소” 에 관한 기사에서 그는 제가 여기서 우리 자신의 논의에 사용하고 싶은 일련의 추론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고학 증거의 단편적인 성격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만들어졌거나 쓰여진 것 중 극히 일부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대에 글을 쓰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파피루스와 같은 부패하기 쉬운 재료는 단순히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내구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비문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모압 왕들과 비슷하게 비문이 새겨진 돌 비석을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압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메사에는 그 돌에 새긴 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그 돌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들이 비슷한 비문을 만들었지만 그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만들었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가 포함된 이스라엘 비석 조각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단어 하나가 포함된 작은 조각입니다.

또 다른 예는 신약 시대 팔레스타인에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지만 서기 70년 이전의 회당은 단 하나만 발견되었으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종류의 삽화가 많이 있지만, 만들어진 것이나 쓰여진 것의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습니다.

회당과 같은 건물의 유적을 찾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고대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에서 자재를 가져와 새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재는 이전 건물에서 가져왔는데, 그냥 집어 들고 제거하여 다른 곳에 두었고 원래 건물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식, 부패 및 파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자연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것과 쓰여진 것의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는다.

2. 조사 및 확인된 현장의 일부

둘째, 가나안이나 성지에서 이용 가능한 유적지 중 극히 일부만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고고학 유적지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44년 팔레스타인 관보는 요르단 서쪽 지역에 총 약 3000개의 유적지와 요르단 횡단 지역에 수백 개의 유적지를 기재했으며, 따라서 1944년에는 약 3000개의 확인된 고고학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1963년에 알려진 유적지의 총계는 주로 Nelson Glueck의 조사로 인해 약 5000개로 늘어났습니다. 1963년 McRae에서 그에 대해 읽은 것 같습니다. 1966년과 1967년에는 남쪽에 있는 네게브에서 몇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200개의 새로운 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 1967/68년에 해당 영토를 점령한 후 골란 고원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곳에서 일부 추가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책임자인 Moshi Kakab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시한 유대 조사에서는 약 1,200개 사이트를 조사했는데 그 중 약 20~30%는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사이트였습니다. 나는 가능한 유적지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며, 전쟁 전 이스라엘의 아직 조사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철저한 조사는 수년에 걸친 문제입니다 .” 따라서 팔레스타인에서 확인된 고고학 유적지 중 3000개 이상의 엄청난 수의 유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 조사된 유적지 중 극히 일부만이 발굴되었습니다.

3. 조사된 유적지 중 극히 일부만이 발굴되었습니다. 1963년 폴 랍(Paul Lapp)은 팔레스타인의 5000개 유적지 중 약 150개 유적지에서 과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숫자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곳이 있고 엄청난 양의 고고학적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잠재력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 합니다 . 5000개의 유적지 중 150개의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150개 중 26개만이 실제로 철저한 작업을 수행한 주요 발굴 작업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100%는 아닙니다. 즉, 대규모 발굴은 26회에 불과하다. 이제 Lapp은 기록에 있는 많은 유적지가 대규모 발굴을 할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4개 중 1개만이 유망한 대규모 발굴이 지금까지 잠재적 유적지의 2%에서만 수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만들어졌거나 쓰여진 것의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유적지의 일부가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유적지의 극히 일부만이 이제까지 발굴되었습니다.

4. 발굴된 유적지의 일부가 실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발굴된 유적지의 일부만이 실제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쿰란 공동체와 같이 작고 수명이 짧은 종류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 그것은 완전히 발굴되었으며, 서기 73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맞서 싸웠던 사해 서쪽의 마사다 유적지가 있습니다. 수명이 짧고 작았으며 거의 완전히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적지를 발굴할 때 유적지 전체를 완전히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발굴된 유적지의 일부만이 실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단명한 작은 유적지 옆에 있는 예외 중 일부는 예를 들어 1925년에서 1934년 사이에 시카고 대학의 동양연구소에 의해 발굴된 므깃도(Megiddo)입니다. 대규모 발굴이었던 그 발굴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적당한 크기의 유적지인 므깃도(Megiddo) 유적지를 취하여 전체 마운드 또는 " 텔(tel)"을 층층이 완전히 뚫어 내려가는 것이 었습니다. 그들은 마운드의 상위 4개 지층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사업이고 그 이후로 그런 규모의 작업이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기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모든 발굴 작업이 중요한 발견물을 놓칠 가능성이 거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은 아마도 여기에 도시로 가는 문이 있거나 저기에 중요한 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섹션을

선택하고 그 장소를 파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 뭔가를 놓치게 마련입니다.

Yamauchi는 자신의 기사에서 Megiddo와 같은 값비싼 발굴 작업에서도 길가메시 서사시의 설형 문자 텍스트가 Megiddo 발굴 작업에서 버려진 잔해에서 양치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발굴 기술이 이렇게 세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요점은 설형 문자 표시가 있는 점토판을 얻을 경우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그 점토판을 흙이나 돌 조각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물건을 파내다가 놓쳐서 더미 위에 쌓은 다음, 비가 와서 진흙과 먼지를 씻어낸 다음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매우 중요한 텍스트는 조심스럽게 발굴된 현장에서도 누락되어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군요.

하조르

팔레스타인의 여러 장소를 발굴한 존 가스탕(John Garstang)은 1928년 하조르(Hazor)에서의 작업을 통해 특정 유형의 도자기인 미케네 1세 도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소는 기원전 13세기와 14세기에 중요한 도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기원전 13~14세기에 이곳이

거주했다면 그곳에는 미케네 도자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 북쪽으로 가서 하솔에서 싸워 그 성을 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부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곳이 점령되었다. 가스탕은 미케네 도자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곳이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도자기를 사용하여 레벨과 유물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최근에 이 유적지는 다시 발굴되거나 추가 발굴되었으며, 이스라엘 고고학자 야딘(Yadin)은 바닥에 미케네 도자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그가 뭔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 그가 발견하지 못한 바로 그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adin은 나중에 많은 미케네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하솔은 가나안 유적지에 비하면 매우 큰 유적지입니다. 위쪽 도시와 아래쪽 도시가 있습니다. 위쪽 도시는 약 30에이커이고 아래쪽 도시는 약 175에이커입니다. 당신은 약 200에이커의 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도시로 볼 때 그리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발굴하고 싶다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Yadin은 30명이 넘는 고고학자들과 함께 일했고, 그는 대규모 직원과 100명 이상의 노동자로 구성된 승무원을 보유했습니다. 그는 사계절 동안 사이트의 1/400을 클리어했습니다. 그것은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시즌당 1/1600이며 그는 약

4~5개월의 작업에 8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작업은 전체 현장을 청소하는 데 일반적으로 여름에 수행됩니다. 따라서 분명히 그것은 완료되지 않을 것이며, 완료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를 더 큰 사이트에 투사하십시오. 200에이커가 아닌 2500에이커 규모의 바빌론으로 가면 니스웨는 1850에이커에 달합니다. 따라서 하술에 대한 야딘의 추정치에 따르면 바빌론을 완전히 발굴하는 데는 약 8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5. 자료 중 극히 일부, 특히 발굴을 통해 생성된 비문만 공개되었습니다.

다섯째, “자료의 극히 일부, 특히 발굴에서 나온 비문만 공개되었다.” 이러한 언어를 해독하고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형 문자로 작성된 텍스트는 다양한 문자와 언어로 작성됩니다. 텍스트 발견과 출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1880년대 대영박물관이 입수한 바빌로니아 왕 목록은 1954년에 출판됐으니 1880년에서 1954년으로 가보면 유물이 실제로 발굴된 시기와 출판된 시기 사이에는 약 75년의 시차가 있었다. 리피트 이슈타르(Lipit Ishtar) 법전은 1800년대 후반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발굴되었으며, 프란시스 R. 스틸(Francis R. Steel)이 1947년에 이 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전을 출판할 때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 박물관의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Francis R. Steel은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그는 1950년대에 대학 박물관의 큐레이터

또는 보조 큐레이터였으며 이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북아프리카 선교부 책임자였으며 최근에 은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리핏 이슈타르 코드 의 번역본을 출판했지만 , 그 코드는 그가 그 코드를 작성하기 전 60~70년 동안 그곳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박물관의 아카드어 큐레이터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양 박물관이 여전히 고대 유물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하실과 창고는 아시리아학 분야에서 발견되지 않은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발굴보다는 기존 설형 문자판 컬렉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는 박물관에 있는 수십만 개의 태블릿 중 아주 작은 비율을 흡수했기 때문에 대학 박물관에 있는 태블릿 컬렉션 크기의 태블릿 컬렉션에서 새로운 발견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서랍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어느 서랍을 열어야 하는가입니다. . 자료의 뒷기록이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해당 자료를 다루는 사람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메르학 교수인 사무엘 크레이머(Samuel Kramer)는 대략 10%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설형문자 문서는 500,000 개에 달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발굴된 자료의 약 10%가 출판된 적이 있을

것이라는 좋은 추측일 것입니다. 바빌론 근처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인 마리아에서는 25,000개의 텍스트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 2,800개만이 출판되었습니다. 1930년에서 1936년 사이에 에슈누나 에서 발견된 서판 중 대부분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Eshnuna 의 법칙은 출판되었지만 대부분의 텍스트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Leonard Woolley는 1930년대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칼데아 우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아직 출판을 완료되지 않았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료의 극히 일부, 특히 발굴을 통해 만들어진 비문만이 출판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마우치의 증거 서클

야마우치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도식화한다. 그는 증거 집단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세 가지 증거 집단으로 나눕니다. 성경 본문이 있거나 문학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고전 문학 본문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적인 유적이 있고 물질적인 유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기본적으로 건물, 기념물, 도자기, 조각상, 이와 유사한 물건의 두 가지 유형의 유물과 다양한 종류의 자료, 법률 문서, 편지, 법원 연대기, 시, 모든 유형의 문학 작품에 대한 글인 문학 유적입니다. 유적. 몇

가지 가능한 조합으로, 문학적 유물이나 물질적 유물과 접촉되지 않은 대부분의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질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외부 확증이 없는 물질적 유물 또는 문학적 유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증거 집단. 그러면 유물 유적과 성경 본문이 겹칠 수 있습니다. 벽이나 도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유물과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학 유적과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입증하는 일종의 추가 성경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말했고 성경 본문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물질적, 성경적 텍스트가 모두 겹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이제 그것들은 어떤 종류의 정확한 백분율에 대한 아이디어로 그려지지 않지만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료의 특성상 대부분의 재료와 중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루고 있다는 증거. 따라서 학문 자체의 특성상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어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의 극히 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 - 고고학적 발견에서 확증을 찾지 못한다면 성서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고고학적 발견에서 확증을 찾지 못한다면 성경적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가정하는 것은 확실히 유효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확증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매우 자주 언급되는 이런 종류의 예는 다니엘서에 미디어 사람 다리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에 대한 추가적인 성경적 확증은 없습니다. 많은 비판적 학자들의 결론은 다니엘서를 쓴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역사를 몰랐으며 그것이 부정확하며 메대 사람 다리오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였는가 ? 몇 가지 제안을 얻었는데, 일부는 그것이 사이러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제안했고, 일부는 그것이 사이러스가 임명한 주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관련된 원칙은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의 존재에 대한 추가적인 성경적 확증이 없다고 해서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Yamauchi는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비문 증거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에 관한 최초의 비문 문서가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1961년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증 없이는 성경적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헤롯 대왕의 첫 번째 비석 증명은 1963-6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 에 관한 모든 질문은 본질적으로 매우 단편적 입니다 .
당신은 그것의 의미를 봅니다.

2. 고고학적 증거의 해석은 많은 경우 잠정적일 뿐이다

둘째, “고고학적 증거의 해석은 많은 경우 잠정적일 뿐이다.”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증거의 해석은 추가적인 증거에 비추어 수정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고학적 증거를 해석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의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나는 그것이 특정 비평가들이 주장한 것, 즉 성경이 고고학적 증거로부터 부정확하거나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 학자들이 사용한 것들과 관련하여 이 영역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다양한 유형의 고고학적 증거를 해석할 때 서로 다른 확실성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종류에 따라 증거의 종류와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증거의 성격에 따라 의심스러운 것부터 가능한 것, 가능성 있는 것, 확실한 것, 전체 스펙트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항이 매우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명확하므로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서면 진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을 발굴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물건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예요.

열왕기상 9:15, 19의 예 - 솔로몬의 마구간/창고

이제 열왕기상 9장 15절과 19절에서 강제 노역에 관한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왕상 9:15,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과 테라스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 징집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이런 여러 곳을 건축하고 모든 창고 성읍과 병거와 말을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는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온 땅에 무엇을 건축하고 싶은지 다스렸습니다. 10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많이 모으니라. 그에게는 병거가 1,400대, 말은 12,000필 있었는데, 병거성에도 두었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습니다.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산기슭의 뽕나무처럼 많이 만들었고, 솔로몬의 말들을 이집트와 케에서 수입했습니다. 왕의 상인들은 그것을 케에서 사고, 병거는 이집트에서 은 600세겔에, 말 한 마리는 150세겔에 수입하여, 헷 족속과 아람 족속의 모든 왕들에게 수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거래의 중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거와 말을 갖춘 자신의 군사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므깃도는 그의 중요한 건축 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므깃도는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시카고 대학의 오리엔탈 연구소가 조심스럽게 발굴한 유적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발굴 작업은 제가 몇 분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전체 마운드 또는 전화를 통해 아래로 작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192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첫 번째 층에는 페르시아와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의 유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원전 6세기경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8세기경의 아시리아 통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앗시리아가 북왕국을 지배하기 이전의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수년간의 발굴 끝에 그들은 이스라엘 시대의 솔로몬 시대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층에서 그들은 이상한 건물의 유적을 발견했는데, 그 독특한 특징은 돌기둥이 줄지어 있는 것이었다. 당신은 아마도 성경 고고학 핸드북에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둥 꼭대기 근처에 구멍이 있는 돌기둥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발굴 책임자는 건물이 마구간이고 기둥이 말을 걸기 위한 기둥이자 동시에 지붕 지지대로 사용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구멍은 말을 기둥에 묶는 동시에 지붕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종종 므깃도에 있는 솔로몬의 마구간으로 언급되며 거의 모든 고고학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9장 19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병거성, 열왕기상 10장 26~29절의 솔로몬의 병거와 말 무역,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5절의 므깃도 건설 활동을 확증한다고 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문제의 증거에 대한 재해석으로 인해 전체 논문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에 James Pritchard는 "20세기 초기 근동 고고학에서 므깃도의 안정적인 재평가"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증거를 검토했으며 추가 연구와 보다 완전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전 결론을 포기했습니다. 변경 이유는 여러 가지였으며, 그 중 첫 번째는 상당히 기술적이게 되는 다양한 이유로 문제의 레벨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Pritchard와 다른 사람들은 문제의 수준이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아합 시대에 속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증거 해석의 이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 Pritchard는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유사한 건물을 기반으로 건물이 마구간이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창고나 막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구멍은 기둥을 걸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건물 상부의 구조적 지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고고학 데이터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

또 다른 기사에서 Pritchard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Pritchard의 두 번째 기사인 “성경과 현대 학문의 문화와 역사”(313~324페이지), 해당 기사의 315페이지에서 Pritchard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은 관찰된 증거를 통해 추론합니다. 냄비, 벽, 바닥 등과 같은 유형의 물체는 굴착자와 그의 동료가 발견된 맥락을 제어하고 식별하고 다른 맥락과 연관시킬 수 있을 때만 역사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해석 과정에는 의견, 상식, 논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간 변수를 고고학 방정식의 구성 요소로 기억하는 것은 부당한 권위주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즉, 그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땅바닥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자료를 가지고 작업해야 하며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들의 의견이 작용해야 하며, 많은 잠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므로 이러한 결론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구리 광산

성경 자료의 확증과 관련하여 다소 친숙한 고고학 발견을 해석하는 데 있어 변화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구리 광산과 제련로로 알려진 것의 발견과 관련이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 Nelson Glueck은 Ezion

geber 근처 사해 남쪽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 Eziongeber 는 Aqabah 또는 El at 도시 근처 홍해 북쪽 해안에 있습니다 .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 영토에 구리와 철광석이 풍부한 광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광석이 솔로몬 시대와 그 이후에 채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Eziongeber 근처의 모든 지역에서 구리 주형과 구리 슬래그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 Glueck은 그곳에서 솔로몬 항구의 폐허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홍해 바닷가 엘랏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 것을 읽습니다. 레바논의 히람은 솔로몬과 함께 함대에서 봉사하도록 그의 선원들인 선원들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그곳 에 시온게베르 에 설립한 해군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 그는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련로나 정련소라고 생각했던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항구의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구리 제련에 관여했으며 아마도 물건을 가져오고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무역에 구리 제련을 사용했다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광로라고 생각했던 것은 알고 보니 다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의 재해석.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본: Jordan Alexandra, Jeff Brown, Connor Graff, Jimmy Newell 및

Ian Kenechte , 그룹 편집자 Ted Hildebrandt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el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다시 해설함